

교육부, 광주교육청 교원 감싸기 제동

음주운전 8명 경징계에 교육부 징계 수위 높여 통보

사안 비송 행정직원은 중징계 ... 신뢰·형평성 논란도

교육부가 음주운전에 걸린 뒤 신분을 감췄다가 뒤늦게 발각돼 징계를 받은 광주지역 교원들에 대해 징계 기준을 높여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관대하게 대처한 결과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사안의 행정직 직원들의 교육청 징계 기준과 견줘 교원 징계위원회의 신뢰·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거세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신분을 감추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던 광주

교원 8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결정,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감사실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조치로, 광주교육청이 앞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8명 전원을 경징계(견책)한 것과 달리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교육청 감사실은 당시 ▲음주운전의 심각성 ▲공무원 품위 손상 ▲적발되고도 신분을 속여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직원들의 불이익 등을 감안, 엄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사를 교육부

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원 2명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당시 교육청 감사실의 요구(중징계 3명·경징계 5명)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징계 결정을 내렸었다. 이 때문에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관대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비슷한 사안으로 적발된 행정직 직원(11명)의 경우 중징계(1명·징직 3개월)·경징계(10명·감봉 1~3개월)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행정직원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행정직 직원들은 이후 원거리 인사 조치 등의 불이익까지 받았다.

교육청은 당시 인사위원회(6월)를 통해 행정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결정했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위원회(7월)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의결했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교육청이 행정직원의 징계 수위를 지켜보고도 '잣대'를 다르게 적용, 교원 징계 기준을 낮추면서 교육 행정의 신뢰·형평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이면서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들의 징계 수위도 경징계(견책)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 본청·지역교육청간 징계 기준과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면허 보철 치료

2억8000만원 쟁거

순천경찰은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보철치료를 한 혐의(보건법위반)로 A(여·5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순천시내 한 상가를 임대해 치과용 의자와 드릴 등 각종 치료 장비를 갖추고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 보철치료를 통해 모두 2억8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기공소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공사'라고 명함을 새겨 시장과 마용실 등을 돌며 "치과 치료 경력이 30년 이상 된다. 싼값에 치료를 해주겠다"고 홍보한 뒤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이후 치료 부위에 염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 AI 상황실 26곳 설치

전남도가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도내 26개소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상시예찰 검사를 강화하고, 야생조류에 대한 포획검사를 확대해 해외 AI 유입요인을 감시하며, AI 기존 발생지역 및 철새 도래지 인근 농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및 예찰을 벌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즐거운 시간 보내는 어르신들

29일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열린 '제20회 노인의 날' 맞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민요 등 흥겨운 가락에 맞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육청 누리 예산 편성 안하면 교부금 못 준다”

광주시 9월분 유보 통보 ... 교육청 “위법 행정” 반발

광주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위법'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광주시와 교육청 간 갈등 국면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광주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경예산에 미반영시 매월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은 9월부터 유보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연간 2273억원 규모의 교부금을 나눠

매월 교육청에 보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법정 전출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현행에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9월분)을 우선 집행해왔지만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가 교육청에 내려줘야 할 4개월분(9~12월) 법정전출금은 대략 526억원 규모로, 지금껏 광주시가 우선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라는 점에서 광주시가 대신 집행한 금액 만큼 '담보'를 잡아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청은 의무지출경비인 전출금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위법' 행위라는 게 골자다. '매월 정수세액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까지 전출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도 무시했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교육청은 아울러 재정 형편을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보육대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3개월분 180억)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6
해질 18:18
달출 05:28
달짐 18:02

가을 나들이 사색하는 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예상강우량 10~80mm

◇지역별 날씨(℃)

광주	비	18/23	보	성	비	17/21
목포	비	18/22	순	천	비	18/21
여수	비	19/21	영	광	비	17/22
나주	비	18/23	진	도	비	19/22
완도	비	19/22	전	주	비	18/21
구례	비	16/21	군	산	비	18/20
강진	비	18/22	남	원	비	17/21
해남	비	18/22	흑	산	비	18/21
장성	비	17/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0
	면바다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0.5~1.5
	면바다(동)	북동~동	1.5~2.5	동~남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5~3.0	북동~동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46		07:00	
여수	14:00		19:14	
	08:45		02:27	
	20:57		14:41	

◇주간 날씨

10/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19/24	20/25	21/25	19/27	18/25	17/26	15/25

옛 전남도청 보존 범시민기구 오늘 출범

광주시·시민단체 등 35개 참여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이 최후의 항전지로 삼았던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고 보존을 목표로하는 범시민기구가 출범한다.

29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이 30일 오후 2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열린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5·18 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등 각계 35개 단체가 대책위에 참여한다. 대책위 공동대표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철우 민주주의광주행동 공동대표가 맡는다.

대책위 활동의 목표는 옛 전남도청 복원 및 보존이다. 활동 원칙으로는 '현재를 중심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및 보존에 동의하는 단체·개인 누구와도 함께 한다', '5월과 광주가 혁신하고 광주공동체를 복원해 자긍심 넘치는 5·18로 거듭나도록 한다' 등 두 가지를 내세웠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옛 도청 본관과 부속 건물을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역사 현장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조속한 복원을 촉구해왔다.

5월 단체는 원형 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옛 도청 본관에 입주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MOWCAP) 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지난 8일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영광 칠산대교 붕괴 공사 관계자 11명 입건

부설시공 탓에 다리 상판이 붕괴된 영광 칠산대교의 공사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영광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주)대우건설 소속 정모(54)씨 등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씨 등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가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은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 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박형진기자 pyj4079@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나눔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피란 동해바다-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 기원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시불 납부 시 약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펠리트 송이클럽	거제 미라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영) 리조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원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객실 회원 요금의 50%

전국 13개 지역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카이라운지/오션월드/컨트리클럽) · 소노펠리트 · 엘피노 골프 앤 리조트 · 쏘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광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거제 미라나 · 엠블호텔 여수 · 엠블호텔 고양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약 | 예금주 (주)대명레저산업 ※ 지정 계좌로 입금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1005-900-99780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비전타워 11층 스카이라운지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11층 절반은 골프존이 현재 입점해 있으며, 호수공원 전망 탁월~
- 11층만의 특별한 공간, 야외테라스!
- 주변 배후세대 5000여가구 밀집

권장업종

- 키즈카페, 휘트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고급중식당, 뷔페등
- 11층 전용면적 178평

비전타워 분양 대행사 비전공인중개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6호) 대표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